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영업트렌드 분석

2016. 7

BNK 금융경영연구소

담 당 : 김광호 수석연구위원
강대일 책임연구원
Tel : 051 - 620 - 3192

■ 목 차 ■

I. 자본시장 현황	1
II. 증권사 영업 현황	8
1. 업무별 트렌드	8
2. 회사 규모별(자기자본) 영업트렌드	12
3. 수익성	16
4. 회사 규모별(자기자본) 수익성	19
III. 자산운용사 영업 현황	21
1. 회사 규모별(운용자산) 영업트렌드	21
2. 수익성	23
3. 회사 규모별(운용자산) 수익성	24
IV. 제도 환경 변화	25

I. 자본시장 현황

주식시장

□ 기업공개는 2014년 이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공모금액은 4조원을 상회

- 코스닥시장의 기업공개 건수는 2013년 37건에서 2014년 67건, 2015년 109건으로 증가

주식 신규상장 현황

(단위: 조원,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건수								
유가증권	2.9	18	0.7	7	0.7	4	3.5	7	2.4	16
코스닥	1.3	57	0.3	22	0.6	37	1.2	67	2.1	109
합계	4.2	75	1.0	29	1.3	41	4.7	74	4.5	125

자료: KRX 보도자료 재구성

- 코스닥시장은 2014년 이후 SPAC* 또는 기술특례상장**이 크게 증가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

**기술특례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재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상장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술평가 수수료 인하,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후 큰 폭으로 증가

코스닥 유형별 상장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일반	21	31	32	39
기술특례	-	4	2	12
재상장	1	-	1	7
이전상장 ¹⁾	-	-	6	8 ²⁾
SPAC ³⁾	-	2	26	45
합계	22	37	67	109

주: 1) 이전상장 - 기업의 주식 거래시장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기는 상장 방식

2) 기술특례상장 2건 포함

3) SPAC합병 기업 제외

자료: KRX 보도자료 재구성

□ 주식거래대금은 2015년 큰 폭 증가로 반전

- 2015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1,327조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여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코스닥시장은 874조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

* 코스피지수: 2014년말 1,915.59p 2015년말 1,961.31p(2.4% 상승)
 코스닥지수: 2014년말 542.97p 2015년말 682.35p(25.7% 상승)

주식 거래대금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KOSPI	1,702	1,196	986	976	1,327
KOSDAQ	558	528	450	483	874
합계	2,260	1,724	1,437	1,459	2,201

자료: KRX

- 투자자별로는 금리인하, 액면분할* 등으로 개인거래가 크게 확대

* 액면분할: 2014년 9개사(유가증권시장 6사, 코스닥시장 3사)에서 2015년 25개사(유가증권시장 9사, 코스닥시장 16사)로 증가했으며 25개사 중 23개사의 거래대금이 분할전 대비 765% 증가

투자자별 주식 거래실적



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합계
 자료: KRX

채권시장

□ 채권 발행규모는 국채·특수채·금융채 등을 중심으로 2015년 중 큰 폭으로 증가

- 2015년중 발행액은 674조원으로 지난 5년래 최대치 기록

채권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채	103	112	136	148	163
지방채	3	4	5	5	6
특수채	71	107	88	60	91
통안채	197	167	175	190	188
금융채	109	97	106	121	143
회사채	73	77	67	58	58
ABS	13	19	21	21	24
합계	569	582	597	603	674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2015년중 특수채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관련(31조원) MBS발행 확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사채 총량제* 시행으로 기타특수채는 전년대비 10조원 감소

* 공사채 총량제: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NH, 한전,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16개 공공기관의 공사채잔액 한도를 설정하여 초과 발행 금지, 2018년까지 6조6천억원 축소 계획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 현황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9	20	22	15	56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금융채 발행 확대는 저금리 기조로 조달비용 감소와 바젤Ⅲ 규제도입에 대비하여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코코본드 발행 현황

(단위: 십억원)

은행명	2014	2015
중소기업은행	800	1,000
농금채(은행)	500	800
산업은행	700	700
신한은행	-	600
하나은행	-	300
하나은행(외환은행)	-	300
우리은행	160	240
대구은행	-	100
부산은행	100	100
전북은행	-	80
제주은행	-	20
광주은행	150	-
경남은행	150	-
전북은행	100	-
합계	2,660	4,240

주: 외화 발행금액 및 지주사 발행 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회사채의 발행은 부진한데 이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소, 국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발행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채권 거래대금은 2015년중 증가세로 반전

- 2015년 채권거래규모는 6,986조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 채권 종류별로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회사채 거래가 줄어들고 국채 거래가 확대

채권 거래대금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채	4,013	4,695	4,953	4,279	4,654
지방채	16	20	19	18	21
특수채	245	373	340	308	295
통안채	1,612	1,491	1,403	1,223	1,271
금융채	582	515	538	580	592
회사채	182	195	178	162	123
ABS	28	32	37	35	31
합계	6,679	7,321	7,469	6,604	6,986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펀드시장

□ 펀드시장규모(투자일임 포함)는 2015년중 최근 5년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증권사 Wrap Account 및 자산운용사 투자일임계정이 큰 폭으로 증가
 - 연기금, 보험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일임 증가에 주로 기인
- 펀드중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채권형펀드 및 MMF가 늘어나고 주식형은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
- 주식형 펀드중 ETF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성장하여 2015년 주식형 펀드의 27.2%에 달하고 있으며 Active 펀드는 오히려 감소 추세

펀드 유형별 설정액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펀드 (a)	증권	주식형	104	95	85	79	81
		(ETF)	(10)	(15)	(19)	(20)	(22)
		혼합형	30	29	33	38	39
		채권형	45	47	56	71	85
	재간접	8	9	10	12	13	
	단기금융(MMF)	53	63	66	82	93	
	파생형	23	31	32	34	33	
	부동산	16	20	24	30	35	
	특별자산	19	23	27	32	40	
	혼합자산	0	0	0	0	2	
소계	298	317	335	377	422		
투자일임 ¹⁾ (계약잔액)(b)		290	334	375	390	504	
운용자산(a+b)		588	651	710	767	926	

주: 1) 증권사 Wrap Account 및 자산운용사 투자일임계정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빠른속도로 성장

- 사모펀드 규모는 2015년말 200조원으로 공모펀드(221조원)의 90.5%에 달함
- 2016.6월 설정액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229조원, 공모펀드 234조원으로 격차는 더욱 좁혀졌으며 잔액 기준으로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를 역전

공·사모 펀드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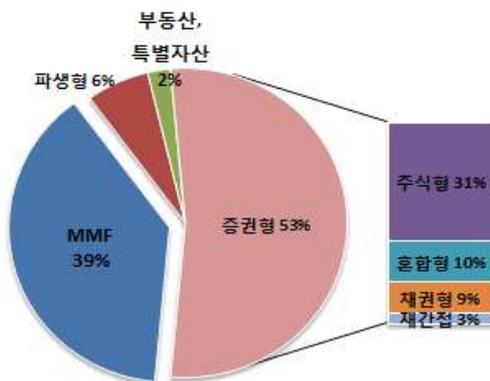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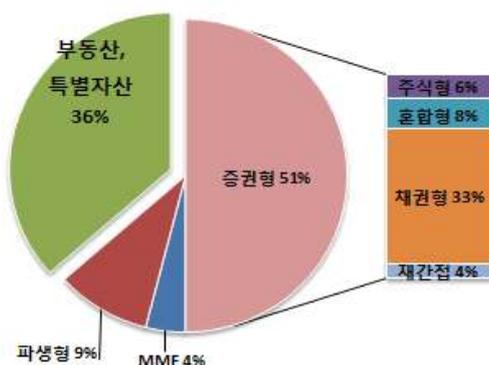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 공모펀드는 MMF 및 주식형 펀드에 각각 39%, 31%의 자금이 집중된 반면 사모펀드는 부동산·특별자산(주로 SOC, 선박 등)펀드, 채권형 펀드가 각각 36%, 33%의 비중을 차지

공모펀드 설정액 비율(2015년말)



사모펀드 설정액 비율(2015년말)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II. 증권사 영업 현황

1. 업무별 트렌드

□ (자기매매) 35개 국내 증권사의 자기매매 거래규모는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 2014~2015년중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거래는 종전의 약 1.5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ELS 판매가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
- 2015년 채권거래의 증가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중위험·중수익 ELS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자금운용과 헤지 목적으로 운용되는 채권규모 증가에 기인

증권사 자기매매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권	9,557	13,472	12,319	11,406	12,908
지분증권	139	86	77	88	123
채무증권	8,787	12,628	11,380	10,491	11,501
펀드	500	680	568	719	768
파생상품	10,887	10,289	10,306	15,667	13,197
합 계	20,444	23,761	22,625	27,072	26,1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위탁매매)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거래규모는 2015년중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 주식 중개규모는 2015년 53.2% 증가
- 파생상품 및 채권 중개규모는 각각 22.8% 및 17.6% 증가

증권사 위탁매매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권	8,032	7,417	6,225	6,373	8,355
지분증권	3,821	2,769	2,355	2,347	3,596
채무증권	3,813	4,436	3,664	3,810	4,479
펀드	79	109	143	151	182
파생상품	12,472	8,710	8,462	7,545	9,265
합 계	20,505	16,126	14,687	13,918	17,62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수·주선) 국내 증권사의 증권발행 인수·주선 실적은 2015년중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채권관련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중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인하된데 기인
- 특히 회사채 인수실적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127조원으로 높은 성장세 기록

증권사 인수 · 주선업무 거래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수	주식	5.5	1.7	2.5	6.1	5.1
	채권	354.7	457.2	416.4	492.8	559.9
	국공채·금융채	198.8	217.8	220.8	249	255.4
	회사채 ¹⁾	88.2	105.8	102.5	99.0	127.0
	기업어음	67.7	133.6	93.1	144.8	177.5
	외화증권	3.0	0.6	0.6	0.2	0.2
합 계		357.7	459.5	419.5	499.1	565.2
주선	주식	9.3	2.2	6.9	9.3	8.4
	채권	202.9	272.3	242.5	230.6	285.5
	국공채·금융채	65.9	86.1	64.1	63.5	61.7
	회사채	121.0	158.5	154.2	147.2	169.7
	기업어음	16.0	27.7	24.2	19.8	54.1
	외화증권	10.4	0.6	0.9	0.2	0.7
합 계		222.6	275.1	250.3	240.1	294.6

주: 1) KTB투자증권 회사채 인수실적 제외(전자단기사채 분류 곤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출) 2015년말 대출채권 잔액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25.6조원으로 최근 5년내 최고실적 기록

- 대출채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공여금*은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 신용공여금: 신용거래용자금, 주식청약자금 대출금, 증권매입자금 대출금, 증권담보대출금을 포함

증권사 대출채권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출채권	18.1	17.8	19.4	21.8	25.6
신용공여금	11.0	10.8	11.7	14.5	16.9
대출금	1.4	1.6	2.8	2.9	3.8
환매조건부매수	0.6	0.9	0.9	0.8	1.5
매입 대출채권	1.7	2.2	1.8	1.2	1.5
사모사채	0.6	0.8	0.8	1.1	1.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우발채무)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

- 2011년 8.2조원에 불과한 우발채무는 2015년 24.1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증권사의 수수료수익 기반이 축소되면서 신규수익원 확보를 위한 보증채무 확대에 기인
- 그 결과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도 2011년 23.4%에서 2015년 59.5%로 상승
- 2013년 이후부터 지급보증, 매입확약 등 신용공여형 우발채무가 급증하는 추세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발채무(a)	8.2	10.7	16.2	19.8	24.1
지급보증	0.7	0.3	1.6	2.7	0.5
매입보장약정	6.3	6.5	7.3	7.7	7.3
채무인수약정	1.1	1.0	0.6	0.3	0.0
매입확약 및 기타	0.2	2.9	6.6	9.0	16.2
자기자본(b)	35.2	35.6	35.6	36.5	40.4
우발채무비중(a/b×100)	23.4	30.0	45.5	54.2	59.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회사 규모별(자기자본) 영업트렌드

□ (자기매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점포망이 부족한 소형 증권사는 낮은 인지도로 소매영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기매매 의존도가 높음

* 자기자본 기준 3조원이상(6개)/ 5천억원이상(14개)/ 5천억원미만(15개)을 각각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

- 위탁매매 대비 자기매매 비율을 보면 대형사 및 중형사는 1.08, 1.30인데 비해 소형사는 2.14배에 달함

매매 종류별 거래규모 현황(2015년)

(단위: 조원,배수)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자기매매(a)	5,587	9,575	10,944
위탁매매(b)	5,151	7,364	5,105
비율(a/b)	1.08	1.30	2.1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 소형사는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데 특히 소형사중 상위 3사의 파생상품 실적은 소형 증권사 전체 실적의 93.1%를 차지

국내 증권사 규모별 자기매매 현황(2015년)

(업체당 평균)

(단위: 조원)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증권	537.3	446.5	228.9
지분증권	10.2	3.6	0.8
채무증권	453.8	416.8	196.3
펀드	61.7	18.8	8.9
파생상품	393.8	237.4	500.7
합 계	931.2	683.9	729.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위탁매매) 소형사는 일부 채권특화 증권사 및 파생상품특화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위탁매매 규모가 작음

□ 한편 중형사는 3~4개사를 중심으로 채권중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증권사 규모별 위탁매매 실적(2015년)

(업체당 평균)

(단위: 조원)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증권	330.0	312.9	43.0
지분증권	255.2	128.6	17.7
채무증권	66.0	170.9	24.3 ¹⁾
펀드	4.0	9.1	2.0
파생상품	528.5	213.1	88.6 ²⁾
합 계	858.5	526.0	131.6

주: 1) 채권특화 증권사 제외

2) 파생상품특화 증권사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수·주선) 증권발행 인수·주선업무를 보면 소형 증권사는
인수사·주관사 참여가 미흡

- 소형사의 채권 인수·주선실적은 업체당 각각 7.6조원 및 1.2조원에 불과

국내 증권사 규모별 인수·주선업무 실적(2015년)

(업체당 평균)

(단위: 조원)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인수	주식	0.6	0.1	0.0
	채권	21.1	22.8	7.6
	국공채·금융채	10.1	11.2	2.1
	회사채	6.2	5.4	1.0 ¹⁾
	기업어음	4.8	6.2	4.1
	외화증권	0.0	0.0	0.0
	합 계	21.7	22.9	7.6
주선	주식	1.0	0.2	0.0
	채권	17.4	11.6	1.2
	국공채·금융채	1.5	3.4	0.4
	회사채	13.5	5.6	0.7
	기업어음	2.4	2.6	0.1
	외화증권	0.0	0.0	0.0
	합 계	18.3	11.8	1.2

주: 1) KTB투자증권 회사채 인수실적 제외(전자단기사채 분류 곤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우발채무)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대부분 중·대형 증권사에 집중

- 중·대형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전체의 95.7%인 반면 소형 증권사는 4.3% 수준으로 15개 소형 증권사중 6개사만 우발채무 보유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은 중형 증권사가 87.4%로 대형 증권사의 2배 수준인데 이는 일부 증권사의 우발채무비율이 과중함에 기인

국내 증권사 규모별 우발채무 현황(2015년)

(단위: 조원,%)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전체
우발채무(a)	9.9	13.1	1.0	24.1
지급보증	2.3	0.2	0.0	2.5
매입보장약정	3.7	2.8	0.9	7.3
채무인수약정	0.0	0.0	0.0	0.0
매입확약 및 기타	6.0	10.1	0.1	16.2
자기자본(b)	22.4	15.0	3.0	40.4
우발채무비율(a/b×100)	44.3	87.4	33.9	59.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수익성

□ 2015년 국내 증권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지난 5년래 최고수준 기록

- 증권거래규모 확대로 수탁수수료 및 대출이익이 호전
- 2015년 ROE는 7.04%로 시중은행(4.32%) 및 지방은행(5.98%)보다 높음

*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미반영 영업이익

국내 증권사 수익 추이¹⁾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수료수익(a)	6.5	5.0	4.7	4.7	6.5
수탁수수료	4.4	3.1	2.7	2.6	3.7
자산관리 및 상품판매	1.2	0.8	0.8	0.8	0.9
인수·주선업무	0.7	0.7	0.7	0.8	1.1
기타	0.3	0.4	0.5	0.6	0.9
수수료비용(b)	0.7	0.6	0.6	0.6	0.9
수수료손익(c=a-b)	5.8	4.4	4.1	4.1	5.6
자기매매손익(d)	-0.3	-0.1	-1.0	-0.8	-1.1
증권	4.0	-2.1	-1.9	-0.5	2.5
파생상품	-4.2	1.9	0.9	-0.3	-3.6
금융손익 ²⁾ (e)	2.7	2.9	3.1	3.6	4.2
외환 및 기타손익(f)	1.2	1.0	1.1	1.4	1.8
영업이익 ³⁾ (c+d+e+f)	9.4	8.1	7.3	8.4	10.5
당기순이익	1.8	0.9	0.5	1.4	2.7
ROE	4.34	1.57	0.58	4.03	7.04

주: 1)Calendar Year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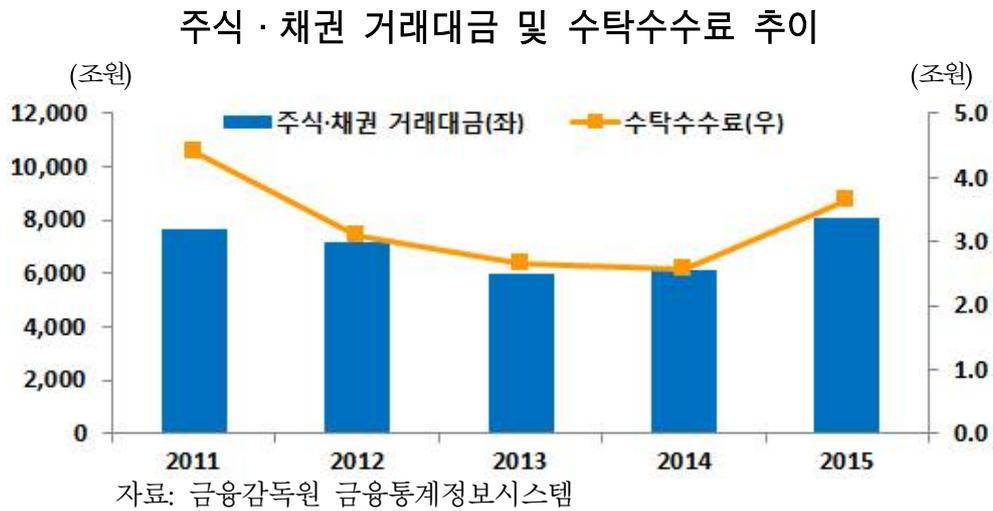
2)대출채권 관련 손익 및 이자손익 합계

3)판매관리비 미반영 영업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수수료) 주식·채권 거래 급등에 힘입어 수탁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

- 2015년 수수료수익의 56.9%를 차지하는 수탁수수료는 전년대비 41.6% 증가한 3.7조원으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



-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랩어카운트 판매 증가로 자산관리부문의 수수료도 꾸준히 증가

국내 증권사 랩어카운트 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4.5	53.7	68.0	75.2	89.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기매매)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의 자기매매부문 실적은 계속
손실 기록

- 2014년까지 손실을 기록했던 증권관련 거래는 기준금리 인하에 의한 채
권 매매·평가 손익 증가로 2015년 2.5조원의 이익 실현
- 반면 파생상품 거래는 3.6조원 손실을 기록하여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었
는데, 이는 ELS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기초자산으로 활용된 중국항생지
수 급락의 영향에 주로 기인

4. 회사 규모별(자기자본) 수익성

□ 2015년중 중형 증권사의 ROE가 8.48%로 대형사 및 소형사를 크게 상회

- 중형사는 펀드 및 ELS판매, 증권발행 인수·주선, 자기매매 부문에서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 시현
- ROE가 가장 낮은 소형사는 자기매매수익 의존도가 높으며 신용공여부문이 여타 그룹에 비해 수익기여도가 낮음

증권사 규모별 수익 현황(2015년)

(단위: 조원,%)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합계
수수료수익(a)	3.1	2.8	0.5	6.5
수탁수수료	1.9	1.5	0.3	3.7
자산관리	0.5	0.4	0.02	0.9
인수·주선업무	0.4	0.5	0.1	1.1
수수료비용(b)	0.4	0.4	0.1	0.9
수수료손익(c=a-b)	2.7	2.4	0.4	5.6
자기매매손익(d)	-0.9	-0.5	0.2	-1.1
증권	0.9	1.4	0.2	2.5
파생상품	-1.8	-1.9	0.03	-3.6
금융손익 ¹⁾ (e)	2.2	1.8	0.2	4.2
외환 및 기타손익(f)	1.0	0.7	0.05	1.8
영업이익 ²⁾ (c+d+e+f)	5.0	4.5	0.9	10.5
당기순이익	1.3	1.2	0.1	2.7
ROE	6.37	8.48	4.97	7.04

주: 1)대출채권 관련 손익 및 이자손익 합계

2)관관비 미반영 영업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수수료) 소형사중 상위 3개사의 수탁수수료 실적이 1,773억원
으로 15개 소형 증권사 수탁수수료의 63.1% 차지

- 각 증권사별로 파생상품 위탁매매 및 리테일 영업을 통한 주식 위탁매매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자기매매) 2015년중 중·대형 증권사와 달리 소형 증권사는 자기매매를 통해 이익 실현

- 중·대형 증권사는 ELS 관련 파생상품거래에서 대부분 손실을 기록
- 대부분의 소형사는 관련 인가 미취득*으로 ELS발행이 불가능하여 파생상품매매 손실 폭이 적음

* ELS발행을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매매 인가를 취득해야 하나, 대부분의 소형 증권사는 동 인가 미취득

III. 자산운용사 영업 현황

1. 회사 규모별(운용자산) 영업트렌드

□ (운용자산) 대형사-중형사-소형사*간 운용자산(AUM)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운용자산규모 기준 20조원이상(11개)/10조원이상(8개)/10조원미만(35개)을 각각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부동산·특별자산 전문 18개사 및 PEF전문 21개사 제외)

- 업체당 평균 운용자산 규모는 대형사가 중형사의 4배, 소형사의 13배에 달하며 11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격차는 펀드에 비해 투자일임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남

규모별 운용자산 현황(2015년)
(업체당 평균)

(단위: 조원)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펀드 (a)	증권	주식형	4.6	1.4	0.5
		혼합형	1.7	1.0	0.3
		채권형	4.6	2.1	0.5
		재간접	3.6	0.1	0.1
		소계	14.6	4.6	1.5
	단기금융(MMF)	5.5	2.3	0.4	
	파생형	2.1	0.5	0.2	
	부동산	0.9	0.1	0.2	
	특별자산	1.7	0.4	0.2	
	소계	25.0	7.9	2.6	
투자일임계약잔액(b)		27.1	5.3	1.5	
운용자산(a+b)		52.1	13.1	4.0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 (투자일임) 11개 대형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규모는 전체 계약고의 75.3% 차지

- 특히 대형사는 투자일임 계약고가 펀드 규모를 상회하는데 이는 계열의 자산운용사로 그룹 자산 위탁집중에 기인

- 35개 소형사의 회사당 투자일임계약잔액은 1.5조원으로 대형사(27.1조원)의 1/18 수준

□ (펀드) 대형 자산운용사의 펀드 설정액은 전체 규모의 65.2% 차지

- 35개 소형사의 회사당 펀드규모는 2.6조원으로 대형사(25.0조원)의 약 1/10 수준

- 한편 운용보수율이 낮은 MMF의 비중이 높은 그룹은 중형 자산운용사로 28.6%이며 소형 자산운용사는 16.7% 수준

2. 수익성

□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

- 2015년중 당기순이익은 4,032억원으로 전년대비 584억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래 최대치 기록
- 이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운용자산 규모 확대에 기인

자산운용사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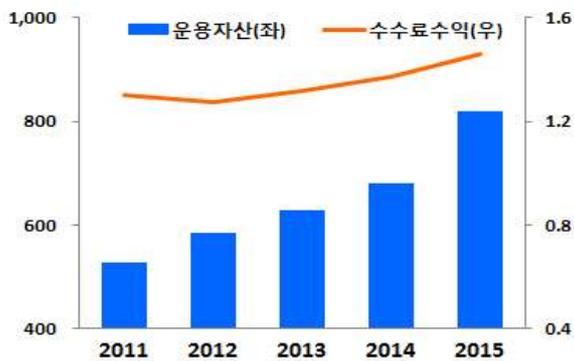


주: 기타는 자기매매손익 및 이자손익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수수료) 2015년중 수수료수익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5조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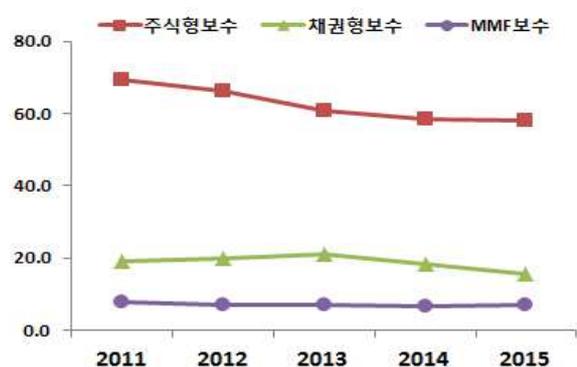
- 한편 자산운용사간 경쟁심화로 운용보수율은 하락하는 추세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및 수수료수익 추이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율 추이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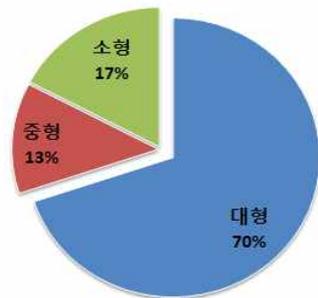
주: 공시된 펀드를 순자산총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3. 회사 규모별(운용자산) 수익성

□ 2015년중 운용자산과 당기순이익 비율을 보면 소형사가 운용 자산규모 대비 순이익률이 높게 나타남

- 투자일임의 경우 계약건당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형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의 전체 비중 및 계약건당 금액이 중 소형에 비해 커서 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규모별 운용자산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규모별 당기순이익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중 7개 소형사가 당기순손실 기록

- 중·대형사는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산 규모가 4천억원 이상인데 비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7개사는 평균 1,682억원
- 소형사는 자기자본대비 운용자산비율이 158배로 중·대형사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쳐 투입인력·자본 대비 낮은 운용효율을 보임

회사 규모별 인력 및 자기자본 대비 운용자산 비교

(단위:억원, 배수)

구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손실7개사
운용자산/운용인력	5,107	4,058	1,925	1,682
운용자산/자기자본	356	321	158	126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V. 제도 환경 변화

□ 2016년부터 증권사 자본활용도 제고를 위한 순자본비율제도 (신NCR) 전면 적용

-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사가 위탁매매 위주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및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14.4.8일), 1년간 증권사별 선택시행 후 2016년 전면 적용
- 2016.3월 기준 국내 증권사 구NCR은 343.8% 이나 신NCR은 거의 두배 수준인 668.1%로 증가

국내 증권사 규모별 평균 NCR

(단위:%)

구분	구NCR(a)	신NCR(b)	증감(b-a)
대형	319.7	1,412.3	1,092.6
중형	359.8	442.5	82.7
소형	474.3	354.2	-119.9
전체	343.8	668.1	324.4

주: 2016.3.31.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자료 재구성

- 신NCR 적용으로 대형 증권사는 6개사 전부 상승한 반면 중형 증권사는 6개사, 소형 증권사는 12개사가 하락하여 규모별로 유·불리 발생
- 이에 따라 향후 대형 증권사는 위험인수 등 자기자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소형 증권사는 NCR을 높이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나 만약 어려운 경우 일부 업무인가 반납, 증권사간 M&A 등 자구노력이 요구됨

[참고]

증권사 NCR제도의 개선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2016.1월부터 적용

-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구NCR)이 필요이상의 유희자본 보유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계산하던 방식에서 필요 유지 자본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 예시) 영업용순자본 400억원, 총위험액 100억원, 필요유지자기자본 75억원인 증권사가 M&A투자로 총위험액 50억원 증가할때 NCR유지에 필요한 자본
 구NCR(400%): 영업용순자본 200억원 추가, 총 600억원 필요
 신NCR(400%): 영업용순자본 50억원 추가, 총 450억원 필요
- 신 NCR적용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 NCR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부과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

(단위:%)

구 분		구NCR	신NCR
경영개선	권고	150	100
	요구	120	50
	명령	100	0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신NCR도입과 함께 재무안정성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규제 도입

-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사의 차입을 통한 과도한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 공표(2014.10월), 1년간 신NCR 적용 증권사에 한해 동시 적용하였으며 2016.1월부터 전면 적용
- 레버리지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그에 맞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 * 총자산÷자기자본×100
- 레버리지규제의 도입으로 증권사의 자산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며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일부 증권사는 외부조달 축소 및 운용자산 규모 감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진행될 전망

적기시정조치 부과 레버리지비율 요건

(단위:%)

구 분	경영개선	
	권고	요구
일반 증권사	1,100	1,300
당기순이익 2년 연속 적자 증권사	900	1,100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금융(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제도 도입

- 중소·벤처 기업 관련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도입(2016.4월)했으며 6개 증권사*를 지정

* 키움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금번 선정된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기업 IPO 주관 실적,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이 우수하거나 해외 진출 또는 해외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한 증권사로 중소기업 자금 중개에 중점

- 2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정책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 대출조건 우대, 기업정보 제공 등)를 제공받으며 반기마다 기업금융실적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실적 부진시 지정 취소 및 타 증권사로 교체

- 한편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증권사”로 지정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허용(2013.10월)

*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자산수탁, 증권대차,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은행 업무